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최 선 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정 인 회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강 순 제

目 次	
I. 서 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1. 한복 착용 실태
1.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	2. 한복 구매 실태
2. 한복에 대한 불만족	3. 한복에 대한 불만족
III. 연구 방법	V. 요약 및 결론
1. 설문지 작성	참고문헌
2. 자료 수집 및 분석	ABSTRACT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I. 서 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다수가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다. 물론, 이 당시의 일상복은 치마 길이나 폭, 고름 등을 부분적으로 간편하게 변형시킨 한복이었으며, 한복 개량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한복을 생활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도 있었다. 광복 이후 제시된 한복 개량안은 한복의 기본형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것과, 기본형 자체를 변형하여 양복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 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도입시킨 것의 세 종류였다.¹⁾ 그러나 결국 일상복으로 한복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한복 고유의 미를 손상

시키는 역효과를 자아내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살려서 명절이나 행사 등을 위한 예복으로 착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예복화된 한복은 실용성이 감소되는 한편 표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형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긴치마로의 회귀이며, 색채와 문양도 화려해졌고, 궁중 의상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한복은 형태의 기본 원형을 상실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장식성이 강화됨으로써 예복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생활 속에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안정된 입지를 고수하게 되었다. 한때 지나친 장식성으로 흐르기도 하였으나 차츰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1996년도 문화체육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몇몇 서양복 디자이너들은 한국 전통복식이 갖는 미적인 특징을 서양복에 도입시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한복 입는 날의 선포 등 한복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옷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복의 도입 이후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은 눈에 띄게 감소되어 왔고, 점차 예복으로의 착용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수요의 감소는 한복 산업의 위축을 가져와 한복관련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인 한복의 착용과 한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복의 착용 및 구매 실태 조사와 함께 한복 착용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한복 착용의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한복의 착용 실태와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착용 및 구매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둘째,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과 한복의 착용 및 구매 실태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전통문화유산인 한복 착용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한복관련업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

한복의 착용 및 구매 실태를 조사한 문헌은 황춘섭(1977),²⁾ 최영미(1987),³⁾ 최영미·조효순(1989),⁴⁾ 아름다운 우리옷(1994)⁵⁾ 등으로 선행 조사 연구가 수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대상이 서울 지역에 국한된 실정이다. 그러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걸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한복 착용이나 구매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황춘섭(1977)의 한복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자기 외생활에서 45~50% 정도, 40~50대의 주부들은 15~20% 정도를 입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청소년들은 한복을 전혀 입지 않으며, 20-30대가 되면 조금씩 입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있어서는 젊은 층보다 4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의 한복 착용율이 높았다. 또한 월소득이 높을수록 착용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한복의 평균 소유별수는 남자가 0.9벌, 여자가 2.1벌로 나타났다.²⁾

한복의 착용 용도에 대해, 황춘섭(1977)이 착용 용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복은 명절복으로 60%, 행사복으로 52.8% 착용되었으며, 그밖에 외출복, 평상복, 언제나의 순으로 착용되었다.²⁾ 최영미·조효순(1989)의 구입 용도 조사 결과에서는 명절복, 외출복, 예복이 각각 31.8%, 일상복이 4.6%로 나타났다.⁴⁾ 아름다운 우리옷(1994)의 조사 결과에서는 명절(47%)과 잔치, 사은회 등의 행사복(23%)과 예복(15%)이 대부분이었으며 외출복(7%)이나 평상복(8%)의 용도는 각각 10% 미만이었다.⁵⁾

시대에 따른 착용 용도의 변화를 보면, 70년대 이후 명절복과 예복의 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인 반면 외출복으로의 용도는 70년대 조사에 비해 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를 보여, 현재 한복은 일상복이나 외출복이 아닌 명절이나 행사복, 예복으로 착용됨을 알 수 있다. 젊은층 또는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주로 명절복으로 한복을 구입하며, 고연령층이거나 학력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한복을 의례적인 예복용으로 구입하고 있다.^{2)·4)·5)}

한복의 구매 실태를 보면 여자 한복의 경우 가정주부이면서 학력이나 월수입이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 많이 구매하며, 어린이 한복은 중년층에서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다. 구매 품목의 경우, 남자

한복으로는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를, 여자 한복으로는 저고리, 치마, 버선, 속치마, 속바지를 구매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특별한 행사복으로도 치마와 저고리의 기본복만을 구매하고 있어 격에 맞는 올바른 예복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

1977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복의 구입 방법은 맞춤복이 64%, 기성복이 17.8%로, 대부분의 제작이 가정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다.²⁾ 1989년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복의 경우 맞춤이 96.9%, 기성복이 2.5%이며, 어린이 한복의 경우는 맞춤이 37.1%, 기성복이 60.6%로 나타났다. 즉, 남·녀 성인 한복은 대부분 맞춤 형식으로 구매되어, 성인의 경우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는 기성복 구입률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한복의 경우, 한복 구입 방법은 월수입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소득이 높을수록 맞춤을 이용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기성복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속옷과 버선의 경우는 학력이나 수입이 높을수록 기성 제품을 이용하고 있어 여자 한복의 구매 방법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⁴⁾

한복 구매 장소는 집주변의 맞춤집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63.5%로 가장 많고 백화점은 5.3%로 아주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명싸롱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가격이 저렴한 시장이나 집주변 맞춤집에서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2. 한복에 대한 불만족

양복이 일상복으로 보급되면서 일상복으로서의 한복 착용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명절복이나 예복으로의 착용도 줄어들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복 착용률의 저하 이유는 한복에 대한 불만족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본 한복의 단점은 활동성의 결여, 갖추어 입기와 옷손질의 번거로움, 여자옷의

경우 방서에 좋지 않음과 치마말기르 인한 가슴의 압박감, 호흡 장애 등이다.²⁾ 이진숙(1989)은 치마허리를 조여매는 정도가 크게 되면 심폐 기능에 부담을 주어 쾌적감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⁶⁾ 류희숙·이진숙(1989)은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복 치마허리의 압력을 조사한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 평균 압력을 가장 크게 느끼며 치마허리르 인한 구속감도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젊은층 여성들이 한복착용시 치마허리를 필요 이상으로 조여매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⁷⁾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같은 원단이라도 소매 점포에 따라 지나친 가격 차이가 나며, 이름난 점포나 디자이너 매장은 조그만 기교만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를 제시하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증가, 저가의 제품 시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복 소재가 지나치게 고급화되거나 예복화되는 경향이므로, 높은 가격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기성복의 경우는 한복이 양복보다 고가이며, 주문복은 한복이 양복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²⁾

일상복화된 양복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탁 손질에 드는 비용이 많이 해결되어져 온 반면, 한복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세탁과 손질을 거의 세탁소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상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따라서 실용적인 원단, 즉 물세탁도 가능하고, 구김도 안가는 부담없는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⁸⁾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한복은 예복용으로 우아하고 품위가 있으나 착용상, 활동시에 불편함을 주고 있어 한복을 생활 예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복 자체의 과감한 디자인 변화와 착용의 간편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⁵⁾ 한편 결혼이나 각종 모임, 가족행사 등이 많은 봄·가을은 한복업체의 성수기인 반면 여름은 비수기로 매출이 감소되므로, 여름용 한복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⁸⁾

최영미(1987)는 한복이 기성복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복이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로 제기하였다.³⁾ 기성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시간절약으로, 현대인의 구매 취향에는 맞춤보다 기성복이 적합하므로, 한복도 맞춤복 제작시 소비되는 시간과 복잡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최영미와 조효순(1989)은 소비자들은 몸에 잘 맞는 치수를 원하고 있어 다양하고 세분화된 치수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 기성복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이상의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한복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활동성, 가격, 세탁 관리, 디자인, 구매 방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지 작성

자료 수집 방법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인 응답법을 사용하였다.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 내용^{2), 4), 5), 8)}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한복의 착용 실태, 한복의 구매 실태, 한복 착용에 따른 불만족, 인구통계 문항이다. 착용 실태 조사는 한복을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내용의 구체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한복의 착용 실태 조사 문항은 한복의 소유량, 연간 착용빈도, 착용 용도, 한 벌 평균 착용빈도, 한 벌의 착용연수, 한복 관련 용품의 소유 정도이다. 한복의 구매 실태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한복의 구매 장소, 한복의 구매 유형, 한복의 구매 가격대이다. 한복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활동성, 손질, 신체 압박감, 디자인이나 소재의 다양성, 한복 마련 방법, 기성복 상점의 부재,

가격이 포함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장, 소득, 주성장 지역, 성장과정시 가족구성, 종교, 사회계층을 포함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7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702부를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 사이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용 Version 5.0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피어슨의 상관관계, 변량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이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45.7%, 부산 30.1%, 대전이 24.2%로 응답자 수는 서울, 부산, 대전 순이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0.9%로 가장 많고 20대가 28.1%이며, 30대와 50대가 각각 20.4%, 20.7%이다.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는 기혼이 72.1%, 미혼이 27.9%로 기혼여성이 많았고,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대학 재학 및 졸업이 50.6%, 고등학교 졸업이 27.8%로 고학력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직업 분포는 주부가 53.1%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직장인이 26.8%, 학생이 16.8%이다. 응답자의 가내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대가 12.1%, 200만원대가 30.1%, 300만원대가 28.6%, 400만원대가 14.0%, 500만원대가 11.3%의 분포를 보여, 전체적으로 200~300만원대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 주성장 지역의 분포는 대도시가 주성장

지인 응답자가 56.7%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도시가 26.6%, 농어촌이 16.1%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성장시 가족구성 분포는 부모님과 2대만 거주한 응답자가 71.9%로 다수였고, 조부모님, 부모님의 3대가 거주한 응답자는 25.5%였다. 응답자의 종교 분포는 불교가 30.8%, 기독교가 30.6%이며 천주교가 17.1%, 무교가 20.9%의 분포를 보인다.

IV. 연구 결과

1. 한복 착용 실태

1) 한복의 소유량

전통한복 소유량의 평균은 1인당 2.49벌로 우리나라 성인여성은 한복을 평균 2~3벌 소유한다고 나타났으며, 1벌에서 3벌을 소유한 사람이 각각 20.5%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다. <표 1> 4벌을 소유한 사람은 7.0%, 5벌은 6.7%, 6벌은 2.6%, 7벌은 1.6%이다. 8벌 이상의 소유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한 벌도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17.4%였다. 황춘섭(1977)의 연구²⁾ 결과에서 여성의 한복 평균 소유량이 2.1벌인데 비해 그 수는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소득 증가에 따라 한복의 소유

량도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성인 여성 평균 변형한복 소유벌수는 0.25벌이다<표 1>. 한 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85.6%로 변형한복의 소유율은 전통한복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 벌을 소유한 응답자가 8.8%, 2벌 소유자는 2.6%, 3벌은 1.7%, 4벌이 0.9%, 5벌이 0.3%. 7벌이 0.1%이다. 성인 여성 중 대부분이 전

<표 1>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소유량

소유량	전통한복		변형한복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한 벌도 없음	122	17.4	601	85.6
1벌	144	20.5	62	8.8
2벌	144	20.5	18	2.6
3벌	144	20.5	12	1.7
4벌	49	7.0	6	0.9
5벌	47	6.7	2	0.3
6벌	18	2.6	0	
7벌	11	1.6	1	0.1
8벌	3	0.4	0	
9벌	4	0.6	0	
10벌	8	1.1	0	
11벌	1	0.1	0	
15벌	5	0.7	0	
20벌	2	0.3	0	
전체	702	100.0	702	100.0
평균	2.49		0.25	

<표 2> 전통한복 평균 소유벌수의 인구통계적 차이

	평균소유벌수						F-값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연령	0.66		2.45		2.90		4.43		97.09**
결혼	미혼			기혼			200.24**		
	0.64							3.20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상		7.15**	
	2.25	1.95	1.89	2.69	3.12	3.34			
성장시 가족구성	2대		3대		4대			8.81**	
	2.26		3.06		3.6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무교			14.96**	
	3.40	2.33	2.36	1.00	1.51				

** 유의수준 p<0.01

통한복 2~3벌을 소유하는 반면에 변형한복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변형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그 보급은 아직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한복의 소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성장시 가족구성, 종교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에 따른 소유량의 차이를 보면, 20대는 0.66벌, 30대는 2.45벌, 40대는 2.90벌, 50대 이상은 4.43벌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한복의 소유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황춘섭(1975)의 연구²⁾에서 젊은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많은 벌 수를 가졌던 것과 일치한다.

결혼여부에 따른 전통한복 소유량은 미혼이 0.64벌, 기혼의 경우 3.20벌로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계기로 한복을 마련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전통한복 평균 소유량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2.25벌, 100만원대의 소득자가 1.95벌, 200만원대의 소득자가 1.89벌, 300만원대의 소득자가 2.69벌, 400만원대의 소득자가 3.12벌, 500만원대 이상의 소득자가 3.34벌이었다.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한복 소유량이 많은 경향이다.

성장시 가족구성에 따라서도 전통한복의 소유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대의 가족구성으로 성장한 여성들은 2.26벌, 3대의 가족구성으로 성장한 여성들은 3.06벌, 4대의 가족구성으로 성장한 여성들은 3.60벌로 확대가족 형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전통한복의 소유 정도가 높다. 이는 한복의 착용회수가 비교적 많은 조부모 세대로부터 한복을 자주 경험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에 따른 전통한복 소유량의 차이를 보면, 불교를 종교로 가진 경우 평균 3.40벌, 기독교는 2.33벌, 천주교는 2.36벌을 소유한다고 나타났다.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여성이 전통한복의 소유량이 더 많다. 불교의 전통성은 착용 의복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형한복 소유량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변인은 결혼여부로만 나타났다. 기혼이 0.32벌, 미혼이 0.06벌로 나타나 전통한복과 마찬가지로 기혼자가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한복 소유량을 계절별로 살펴보면<표 3>, 전통한복의 경우, 봄·가을용이 전체의 46%로 한복 소유량의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겨울용은 31%, 여름용은 23%의 순이다. 변형한복은 봄·가을용이 41%, 여름용 34%, 겨울용이 25%의 순이다.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경우 모두 봄·가을용이 많았다. 사계절용 한복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한복이 모두 봄·가을용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한복의 구조적 특성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갓추어 입기가 번거로운 것도 계절별 소유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표 3>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계절별 소유량의 비교

계절별 구분	전통한복		변형한복	
	소유량	비율 (%)	소유량	비율 (%)
여름용	399벌	23	58벌	34
봄·가을용	791벌	46	69벌	41
겨울용	526벌	31	43벌	25
전체	1,717벌	100	170벌	100

2) 한복의 연간착용빈도

한복 소유자의 연간착용빈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전통한복 소유자 555명의 평균 연간착용빈도는 2.80회이다. 연간 1회 착용자가 전체 착용자의 28.6%, 2회 착용자는 30.1%, 3회 착용자는 13.0%이며, 4회 이상 착용자는 적은 수에 그쳤다. 따라서 전통한복의 연간 착용빈도는 1회 내지 3회가 대부분이다.

변형한복 소유자 89명의 연간착용빈도는 1회가 24.7%, 2회가 25.8%, 3회가 7.9%, 4회가 3.4%, 5회가 13.5%로 나타났다. 1회에서 5회 정도 착용자

<표 4>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연간착용빈도

연간착용빈도	전통한복		변형한복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0회	57	10.3	7	7.9
1회	159	28.6	22	24.7
2회	167	30.1	23	25.8
3회	72	13.0	7	7.9
4회	27	4.9	3	3.4
5회	33	5.9	12	13.5
6회	7	1.3	0	0
7회	4	0.7	1	1.1
8회	1	0.2	1	1.1
9회	1	0.2	0	0
10회	15	2.7	6	6.7
12회	2	0.4	0	0
15회	1	0.2	0	0
20회	5	0.9	3	3.4
30회	0	0.0	1	1.1
36회	0	0.0	1	1.1
48회	1	0.2	0	0
50회	3	0.5	1	1.1
60회	0	0.0	1	1.1
전체	555	100.0	89	100.0
평균	2.80		5.30	

탄닌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주성장 지역이다<표 5>. 연령에 따른 전통한복의 연간착용빈도를 보면, 20대는 1.20회, 30대는 1.87회, 40대는 3.27회, 50대 이상은 4.15회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착용회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를 기점으로 한복 착용이 빈번해짐을 알 수 있다.

전통한복의 연간착용빈도를 결혼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기혼의 경우 평균 3.07회, 미혼의 경우 1.38회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기혼의 경우 착용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성장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대도시 성장자는 연간 2.55회, 중소도시 성장자는 2.60회, 농어촌 성장자는 3.97회로, 도시의 규모가 큰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착용빈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변형한복의 경우 착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변인은 주성장 지역이다. 대도시 성장자는 연간 0.22회, 중소도시 성장자는 0.23회, 농어촌에서의 성장자는 0.45회로 도시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변형한복을 자주 착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한복의 경우와 일치한다.

<표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전통한복의 연간착용빈도

	평균착용빈도(회)				F-값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연령	1.20	1.87	3.27	4.15	9.65**
결혼	미혼		기혼		9.39**
	1.38		3.07		
주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40*
	2.55	2.60	3.97		

** 유의수준 p<0.01 * 유의수준 p<0.05

가 80%이상의 대다수였다. 그러나, 20회, 30회, 36회, 50회, 60회의 응답자들이 각각 1명씩 있어, 변형한복을 즐겨입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착용빈도는 5.30회로 전통한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변형한복이 일상복으로 실용화되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통한복의 연간착용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

3) 착용 용도

전통한복의 착용 용도를 보면(표 6, 중복응답: N=580), 대부분 결혼식이나 잔치 참가시의 외출복으로(66.7%), 혹은 명절에 착용(55.2%)하고 있으며 혼례용으로는 24.7%, 모임 참가시 13.6%, 제사때 7.4%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상복으로의 용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착용 용도

용 도	전통한복 (%)	변형한복 (%)
평상복으로	2(0.3)*	18(17.6)
모임 참가시 외출복으로	79(13.6)	38(37.3)
결혼식이나 잔치 참가시 외출복으로	387(66.7)	52(51.0)
혼례용 예복으로	143(24.7)	12(11.8)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	320(55.2)	37(36.3)
제사 때	43(7.4)	2(2.0)
기타	67(11.6)	11(10.7)

* 응답자 580명 중 2명이 전통한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며, 이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0.3명에 해당한다.

<표 7> 전통한복의 한 벌 평균 착용 빈도

한벌 평균 착용빈도	응답자수	비율(%)
0	4	0.8
1	35	7.2
2	54	11.1
3	74	15.2
4	33	6.8
5	68	13.9
6	18	3.7
7	13	2.7
8	11	2.3
9	1	0.2
10	108	22.1
11	1	0.2
12	1	0.2
13	1	0.2
14	1	0.2
15	19	3.9
20	30	6.1
25	1	0.2
30	12	2.5
35	1	0.2
80	1	0.2
500	1	0.2
전체	488	100.0
평균		8.50

70년대의 평상복으로의 용도가 10% 가까이 나타난 데 비하여²⁾ 평상복으로의 용도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변형한복의 착용 용도(표 6, 중복응답 : N=102)

<표 8> 전통한복 한 벌의 착용연수

평균 착용연수	응답자수	비율(%)
1	2	0.4
2	41	7.5
3	124	22.8
4	43	7.9
5	195	35.8
6	20	3.7
7	9	1.7
8	9	1.7
10	91	16.7
12	1	0.2
13	2	0.3
15	3	0.4
20	5	0.7
전체	545	100.0
평균		5.42

는 평상복으로의 사용이 17.6%, 모임참가시 외출복이 37.3%, 결혼식이나 잔치 참가시가 51.0%, 혼례용이 11.8%,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용이 36.3%, 제사 때는 2.0%이다. 전통한복과 변형한복의 착용 용도를 비교하면, 변형한복은 전통한복에 비해 비공식적인 평상복이나 외출복으로 착용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전통한복의 한 벌 평균 착용빈도

한복을 한 벌 구입한 경우 총 몇 회나 착용하는가를 질문한 경우(표 7), 10회가 22%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1회에서 5회 정도의 착용회수를 보인다. 한 벌당 착용회수가 많지 않은 것은 한복의 경제적 효용이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5) 전통한복 한 벌의 착용연수

전통한복 한 벌의 착용연수는 평균 5.42년이다. 표 8에서와 같이 착용 기간이 5년인 경우가 35.8%로 가장 많고, 10년이 16.7%, 3년이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과 10년에 응답이 몰린 것은 응답하기 쉬운 숫자라는 응답 편향 때문일 것이다. 3년이 52.6%, 3년을 넘는 경우가 47.5%였던

1987년의 결과⁴⁾와 비교해 볼 때, 한복 착용연수는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복의 수명주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그 구입회수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6) 한복 소유자의 기타 품목 소유 정도

한복 소유자의 기타 품목의 소유량에서, 속치마와 속바지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0%정도가 1~2벌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선의 경우는, 1~2벌레 소유자가 63.2%, 3벌레 소유자가 17.8%이며, 10벌레 소유자가 1.7%이다. 고무신은 1~2벌레 소유자가 75%에 해당한다. 두루마기는 전체의 반수(51.0%)가 소유하지 않으며, 1벌 소유자가 41.7%이다. 특수예복은 거의 모두(97.9%)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노리개는 60%인 과반수 이상이 전혀 소유하지 않으며, 1개 소유자가 26.7%, 2개 소유자가 전체의 9.1%이다. 최영미·조효순(1989)의 연구⁴⁾결과 노리개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40.9%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노리개 패용율은 더 줄어들었다고 보여진다.

한복 착용시 신는 신발의 종류를 보면, 응답자의 44.9%가 개량고무신을 착용하며, 전통고무신은 29.4%의 착용율을 보인다. 구두의 착용율은 24.7%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 착용시에는 대다수가 고무신 종류를 착용하고 있어, 다른 품목의 소유량이 적은 데 비해 신발에 있어서는 전통 신발의 착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한복 구매 실태

1) 한복 구매 장소

한복 구매 장소는 표9에 제시하였다. 한복 구매 장소는 백화점이 0.5%, 디자이너한복점 4.8%, 혼수전문점 20.4%, 고급주단점 26.3%, 동네한복맞춤점 28.2%, 재래시장주단점이 16.3%로 나타났다. 구매를 많이 하는 장소는 동네한복맞춤점, 고

<표 9> 한복 구매 장소

구매 장소	응답자수	비율(%)
백화점	3	0.5
디자이너한복점	27	4.8
혼수전문점	115	20.4
고급주단점	148	26.3
동네한복맞춤점	159	28.2
재래시장주단점	92	16.3
기타	19	3.4
전체	563	100.0

<표 10> 한복 구매 유형

구매유형	응답자수	비율(%)
한복집에서 옷감을 골라 맞춤	385	67.1
옷감을 따로 사서(얻어서) 맞춤	160	27.9
기성복으로 구입	13	2.3
집에서 만듦	11	1.9
기타	5	0.9
전체	574	100.0

급주단점, 혼수전문점, 재래시장주단점, 디자이너한복점, 백화점 순이다.

한복 구매 장소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매자의 소득 수준으로, 디자이너한복점은 300만원대 이상의 소득자들이 찾고, 고급주단점은 200만원대 이상의 소득자들이 이용하였다. 혼수전문점은 200~300만원대 소득자, 동네한복맞춤점은 100~300만원대의 소득자가 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복 구매 유형

한복의 구매 유형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복집에서 옷감을 골라 맞추는 유형이 6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옷감을 따로 사서 맞추는 경우는 27.9%이며 기성복의 구입 정도는 1.3%로 매우 낮았다. 집에서 손수 만드는 경우는 1.9%로 나타났다.

3) 한복 구매 가격대

한복 한 벌당 구매 가격대는 표11에 제시하였

<표 11> 한복 구매 가격대

구매 가격대	응답자수	비율(%)
10만원 이하	14	2.5
10만원 대	56	10.0
20만원 대	140	25.0
30만원 대	171	30.6
40만원 대	81	14.5
50만원 대	64	11.4
60만원 대	10	1.8
70만원 대	7	1.3
80만원 대	8	1.4
90만원 대	4	0.7
100만원 대 이상	4	.07
전체	559	100.0

다. 구매 가격대는 30만원대가 30.6%로 가장 많으며, 20만원대가 25.0%, 40만원대가 14.5%, 50만원대가 11.4%, 10만원대가 10.0%로 나타났다. 60만원 이상의 경우가 5.9%이며, 이 중에는 90~100만원대의 고가격대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 구매 가격은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가격대도 같이 높아진다.

3. 한복에 대한 불만족

1)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

한복에 대한 불만족 각 문항에 대해 1-5점으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 점수를 보면, 활동성에 대한

불만족이 4.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손질의 어려움은 3.72, 가격이 3.56, 신체 압박감이 3.43, 맞춤의 번거로움이 3.47, 기성 한복의 부족이 3.48, 구매 장소의 부족이 3.22로 불만족 정도를 나타냈다. 즉 한복은 활동하기 불편하며 신체에 압박감을 주고, 구입시 쉽게 기성복을 구입하기 어려워 직접 맞춤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진다고 제시되었다. 몸에 맞는 정도는 2.73, 디자인의 다양성은 2.86, 옷감의 다양성은 2.53으로 몸에 맞는 정도와 디자인 및 옷감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불만족 문항들을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 추출과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표 12>, 고유치가 1.0 이상인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한복을 입으면 신체 압박감을 느낀다’, ‘한복은 손질하기가 어렵다’, ‘한복은 몸에 잘 맞지 않는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성, 신체 압박감, 손질법, 맞춤새의 내용을 가지므로 ‘착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전체 불만족 내용의 28.0%를 설명한다.

요인 2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복집을 찾기 어렵다’, ‘한복은 양복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좋은 품질의 기성 한복을 찾기 어렵다’, ‘한복은 맞춤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의 문항으로 이루어

<표 12> 한복에 대한 불만족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평균	고유치 (설명변량)
요인 1 (착용에 대한 불만족)	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0.77	4.00	2.80 (28.0%)
	한복을 입으면 신체에 압박감을 느낀다	0.73	3.43	
	한복은 손질하기가 어렵다	0.66	3.72	
	한복은 몸에 잘 맞지 않는다	0.52	2.73	
요인 2 (구매에 대한 불만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복집을 찾기 어렵다	0.74	3.22	1.46 (14.6%)
	한복은 양복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0.72	3.56	
	좋은 품질의 기성 한복을 찾기 어렵다	0.61	3.48	
	한복은 맞춤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	0.55	3.47	
요인 3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	한복은 옷감이 다양하지 못하다	0.21	2.53	1.08 (10.8%)
	한복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0.12	2.86	

졌다. 이는 한복 구매처, 구매 가격, 품질, 구매 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매에 대한 불만족'이라 명명하였다. 설명 변량은 14.6%이다.

요인 3에는 '한복은 옷감이 다양하지 못하다', '한복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복의 옷감이나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이라 명명하였다. 설명 변량은 10.8%이다. 이 요인들로 미루어 보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한복을 착용하거나 구매할 때 불만족을 많이 느끼지만, 구매 기회가 많지 않은 까닭에 한복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한복에 대한 불만족

한복에 대한 불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이었다. 한복에 대한 불만족도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13>, 20대 여성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보다 불만족도가 낮은 편이나, 30대 이상만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대 여성은 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한복의 소유 및 착용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불만족 사항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착용과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착용에 있어, 20대 이후 30대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복 착용으로 인한 불만족이 작다. 이는 한복을 착용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착용에 대한 불편함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황춘섭(1977),²⁾ 최영미·조효순(1989)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들이 3점 이하로 불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불만족이 가장 적었다. 구매 불만족은 연령 차이 없이 모두 어느 정도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소재나 디자인 문제보다는 구매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복에 대한 불만족과 착용 실태와의 상관관계

한복의 착용 실태와 한복에 대한 불만족 사항 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복 착용 실태 변인들과 불만족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표 14

<표 13> 연령에 따른 불만족

	연 령				전체 평균	F-값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착용 불만족	3.47	3.60	3.42	3.37	3.46	3.68*
구매 불만족	3.43	3.47	3.46	3.38	3.44	0.50
다양성 불만족	2.58	2.83	2.67	2.75	2.70	2.68*

* 유의수준 p<0.05

<표 14> 한복에 대한 불만족과 착용 실태와의 상관계수

	착용 불만족	구매 불만족	다양성 불만족
전통한복 평균소유별수	-0.16**	-0.04	0.02
전통한복 연간착용빈도	-0.30**	-0.11*	-0.12**
전통한복 평균착용빈도	-0.09*	-0.02	-0.08
전통한복 평균착용년도	-0.04	0.01	0.06
변형한복 평균소유별수	-0.18**	-0.03	-0.10**
변형한복 연간착용빈도	-0.36**	-0.03	-0.21

** 유의수준 p<0.01 * p<0.05

에 제시하였다. 한복 착용 실태와 가장 관련이 많은 요인은 착용에 대한 불만족이다. 한복을 착용할 때 활동이나 옷의 맞음새 등에 대해 만족할수록 한복을 많이 소유하며, 한복을 자주, 많이 착용한다는 결과를 보인다. 전통한복 연간착용빈도는 모든 불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복을 착용하는 회수가 많을수록 한복에 대한 불만족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변형한복을 많이 소유할수록 다양성 불만족이 낮은 것도 흥미있는 결과이다. 전통한복 이외에 변형한복까지 착용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한복 착용의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한복의 착용 실태와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착용 및 구매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둘째,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과 한복의 착용 및 구매 실태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여성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702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통한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77년의 조사에 비해 소유량은 다소 증가한 경향이나 한복 한 벌의 착용연수는 길어져 한복의 실제 구매량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한복은 더 이상 일상복으로 인식되지 못하며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사람들이 명절이나 잔치 참가 등의 특별한 목적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경향이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착용 실태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소득 수준, 성장시 가족구성, 종교이다. 기혼이며 연령이 높은 여성들이 한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100만원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복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전통한복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여성, 그리고 성장시 조부모님과 확대가족으로 생활한 여성의 한복 소유량이 많았다. 또한 대도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도시나 조부모님과 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접한 경험이 많은 경우 한복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 소유하고 착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의례가 간소화 되어가고 서구적인 생활방식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전통한복의 착용 기회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볼 때, 한복을 고유 전통의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명절복이나 행사복, 혼례복 용도로의 착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정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 한복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변형한복은 전통한복에 비해 소유량이 적다. 그러나 전통한복과 비교해, 변형한복의 경우 외출복으로의 용례가 많으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변형한복이 개발된다면 한복 착용빈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전통한복은 예복으로 아름다운 전통형태를 유지하며, 변형한복은 일상복으로 보다 편리함을 강조한 형태로 개발하여, 한복 산업의 이중적 구조를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한복은 동네한복맞춤점에서 대부분 구매하며, 고급주단점, 혼수전문점, 재래시장주단점, 디자이너한복점, 백화점 순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한복 구매 장소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매자의 소득 수준으로, 고소득자가 구매하는 장소는 디자이너한복점, 고급주단점, 혼수전문점, 동네한복맞춤점 순이다. 한복의 마련방식은 95%의 대다수가 맞춤으로 구입하고 기성복 구입은 1.3%, 손

수 제작하는 경우는 1.9%로 극소수였다. 구매 가격대는 30만원대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한복 구매 가격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높아졌다.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착용에 대한 불만족, 구매에 관한 불만족,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으로 제시되었다. 세 요인 중 착용과 구매에 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 한복은 착용시 활동에 불편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손질과 구입이 번거롭다고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착용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연령으로,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 연령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복 착용시 신체적인 압박감과 활동시 불편한 점이 적게 나타났다. 젊은 여성들이 한복 착용시 불편해 하는 것은 한복을 착용해 본 경험이 적어 익숙하지 않고, 지나치게 치마허리를 조여매는 등 착용 방법이 미숙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착용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하며, 한복의 바른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인체에 맞는 패턴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복 구매시에는 주위에서 손쉽게 구입할 상점의 수가 적고 맞춤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예복으로서의 한복을 마련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과 품질의 기성 한복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기성복의 개발과 유통 경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시키고 한복관련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개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까지 포함하는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는 변형한복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남윤숙(1989). 한국 현대 여성 복식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황춘섭(197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호, 119~128.
- 3) 최영미(1987). 도시주부의 한복 구매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최영미·조효순(1989). 한복의 구매실태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복식 13호, 135~150.
- 5) 아름다운 우리옷(1994년 5월호), 136~138.
- 6) 이전숙(1989). 한복 치마허리 치수가 인체의 압력과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권 2호, 109~116.
- 7) 류희숙·이전숙(1989). 한복 치마허리의 압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권 2호, 103~108.
- 8) 이호정(1996). 패션유통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ABSTRACT

A Study on the Wearing and Purchasing Hanbok of Korean Urban Women

The purposes of present study were (1)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wearing and purchasing Hanbok, (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wearing and purchasing Hanbok and (3) to identify the dissatisfaction with Hanbok.

Data were collected from 702 females, age 20 or older, residing in Seoul, Taejon, Pusan and were analys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Korean urban women possess from one to three Traditional Dress and wear Hanbok in one to three times during one year for special days.

(2) The demographic variables that affect on wearing and purchasing Traditional Hanbok were age, income, family make-up and growing region.

(3) One among the four Korean urban women possesses a Deformed Hanbok. And Korean women wears Deformed Hanbok for both daily life and special days.

(4) The store that most women purchase Hanbok was order-made store near the house. The income affected on the store that purchaser selects significantly.

(5) Three factors consisting of dissatisfaction with Hanbok were dissatisfaction with 'wearing', 'purchasing' and 'diversity of Hanbok design'.

(6) Significant levels of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the degrees of wearing Hanbok and the dissatisfaction.